

아름다운 화장실을 찾아서!

글. 백홍식 / 수원시 화장실문화협의회 수석부회장 · 으뜸화장실콘테스트 심사위원

화장실 문화 개선운동이 정식으로 출발한지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 1996년 10월경 수원시청에서 업무를 보던 중 건축 담당 직원과 우연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 화장실과의 인연을 맺게 되었고, 단어조차도 생소한 “아름다운 화장실”이란 개념이 단지 고급스럽게 치장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우리나라 고급호텔의 화장실을 찾아 다니며 사진도 찍어보면서 설계가 아닌 그림을 그려본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니...!

그동안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수없이 뜯어 고쳤고, 건축물의 화장실이 주로 주간에 사용하기 때문에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작업을 하면서 아니 그것도 남들이 싸놓은 똥냄새를 맡아가며 밤샘하는 것도 힘들건만 잠시 자리만 비워도 고급 위생기구를 훔쳐가거나 또한 몰래 실례를 하고 도망가는 것은 다반사이지만 화장실에다 호텔을 만드는 것인지? 돈을 쳐 바르고 있다든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은 커녕 비아냥 거리는 핀잔도 많이 받았다.

어쨌든 화장실문화 개선운동의 메카인 우리 수원시가 1997년 7월 『화장실문화발전을 위한 심포지움』을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하여 매년 열리고 있으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실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매달 『으뜸화장실 콘테스트』를 통한 “아름다운 화장실”이 선정되어 시상과 더불어 화장실 문화운동을 홍보하고 또한 시민의 의식구조를 함양하고자 꾸준한 노력을 다하여 왔던 것이다.

더욱이 2000년도에는 민간단체인 『수원시 화장실문화시민협의회』가 발족되어 『수원시』와 『월드컵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수원시협의회』와 공동으로 “선진 화장실 문화발전을 위한 표어·포스터·낙서·만화 공모전”과 “잠긴 화장실 문 열기운동”·협의회 회보인 “뒷간의 미학”을 계간으로 발간하였고 “인형극”을 통하여 연령의 구별없이 시민들과 함께 자연스런 화장실문화 개선운동을 고취시키고자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다하여 왔던 것이다.

이제까지 가장 지지분하고 불결한 화장실로 여겨졌던 공중화장실이 지금은 고속도로 휴게실의 공중화장실·관공서나 공원등의 다중이 모이는 장소의 화장실이 청결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변모해 왔고 또한 시민의식도 예전과는 달리 화장실에 대한 개념은 물론 의식구조가 놀라우리 만큼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The Monthly Magazine of Korea Clean Toilet Association

그동안 일본과 싱가포르의 국제대회에 참석하여 화장실 문화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통한 문화교류와 선진국의 공중화장실을 답사하여 견문을 넓혀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우수화장실 콘테스트”에 선정된 공중화장실의 실제(?)를 알고자 『수원시 화장실문화협의회 위원』과 『수원시 으뜸화장실 콘테스트 심사위원』 공동으로 먼저 한국관광공사 월드컵 문화시민협의회 조선일보에서 주최되었던 우리나라 “우수화장실”로 선정된 화장실중에서 지역별로 선정하여 제1차적으로 강원지역을 답사하기로 하였다.

물론 수원시의 공중화장실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배울점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동시에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비록 지역적이지만 답사한 느낌을 지면 관계상 두 가지만 제시하고자 한다.

● 첫째 : 멀리서 알아볼 수 있는 「화장실」이라는 커다란 글씨로 표기된 간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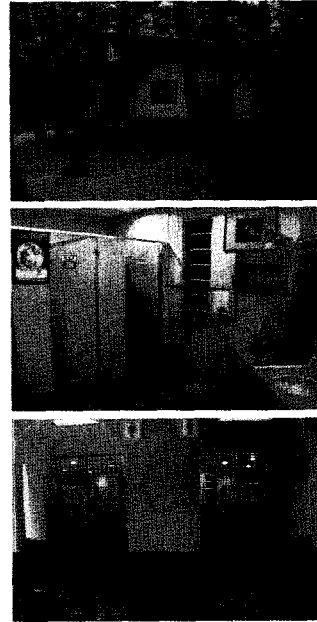
과거에는 공중화장실이 본동과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한 조그만 건축물로서 약간은 허술하게 지어져 있어 쉽게 식별할 수 있었지만 근래에는 공중화장실이 본동과 가까이 있고 건축물의 규모가 크고 잘 지어져 있어 표지판이 없이는 화장실을 쉽게 구별 할 수가 없다. 더욱이 설악산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노루목화장실과 같이 공원의 숲속에 있는 화장실의 경우는 자연과 주위 환경에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외관을 지니고 있어 화장실이라기 보다는 카페를 연상하게 되는데 입구에 조그만 안내표지판이 있어 멀리서도 쉽게 인식할 수가 없었다.

물론 노루목화장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이 안내표지판은 있지만 자연경관과 건축물의 조형성과도 어우러지는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화장실」이라는 커다란 글씨로 표기된 안내표지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둘째 : 화장실을 이용하는 출입구가 대부분 전면의 한 개소이다.

공중화장실은 다중이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일시적으로는 매우 혼잡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남녀화장실의 출입구가 대부분 전면의 한 개소에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가 들어가고 나올 때에 동선이 매우 혼잡하며 더욱이 전면을 중요시 하고 후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설악산 소공원 화장실의 경우 후면의 벽을 막지 않고 전체 벽면을 유리창으로 후정 화단의 조경을 안으로 끌어 들이려고 의도는 매우 인상적이었으나, 바람이 있다면 유리창 대신 강화 도어 출입문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별일을 보고 후정의 조경을 보면서 나갈 수 있게 동선을 설계하였다더라면 전면 출입구 동선의 혼잡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었고 또한 후정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감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고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즐거웠고, 또한 수원시가 화장실 문화개선운동의 메카로서 타 도시보다는 더욱더 앞서나가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다짐하면서 이제 2차 답사기간인 여름방학을 기대하고자 한다.



- 노루목화장실의 외부전경
- 화장실내부전경 (파우더룸이 한켠에)
- 아늑한 조명의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화장실 입구전경